

# 수도권 주거 및 산업입지 변화분석

## Changing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Industrial Loc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한영주\*/안경미\*\*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변화요인 분석 |
| II. 주거입지의 변화  | V. 결론       |
| III. 산업입지의 변화 |             |

### ABSTRACT

Yeong-Joo Hahn · Kyoung-Mee Ah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ge of suburbaniz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analyzes the correlations of the suburbanization factors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Seoul's population share has declined from 62.9% in 1980 to 50.7% in 1995. This population suburbanization has been led by the middle class reflecting the fact that many suburbanites are commuting. Concomitantly, Seoul's industrial share, both in terms of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ment, has also declined during the same period. These processes can be characterized by spatial division of labor based on spatial dispersion and diff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urrent stage of suburbanization is employment suburbanization, implying some mismatch problems are in progres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위원



## I. 머리말

현대 대도시들의 공간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대체로 도시의 광역화와 인구 및 고용 등 도시 기능의 분산화, 교외화 과정을 거쳐 다핵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서울은 이미 196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1도심 6부도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전략을 계획한 이후, 1990년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기능의 분산화와 다핵구조화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2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1997~2011)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상당부분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서울에서의 경제활동은 제한되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의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신도시는 서울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서울의 인구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구와 고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비서울<sup>1)</sup> 지역으로의 이동은 서울의 경제활동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구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인구의 교외화가 1960년대 말 제조업의 교외화로 이어졌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소매업 및 오피스도 교외화되어 중심도시의 경제활동이 크게 침체되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도 인구의 교외화에 따라 고용도 교외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수도권의 교외화 패턴을 다루기보다는 인구와 산업의 공간분포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교외화의 인구학적, 산업별, 직업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시·군·구별 인구변화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구조변화, 고용자의 분포 변화 등을 분석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이다.

주거 및 산업입지의 변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공시지가, 각종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본 논문에서 '비서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지역을 합한 지역을 말한다.



## II. 주거입지의 변화

### 1. 수도권 인구의 공간분포 변화

전국인구 중 수도권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1995년 4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1995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전국이 1.2%에 비해 수도권은 2.8%로 전국의 2.3배에 달한다. 1990년부터는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인구증가율의 3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인구 중 서울인구 비중은 1980년 62.9%에서 1995년 50.7%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1992년을 정점으로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1980-1995년 기간동안 인천, 경기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4.8%와 4.6%로 비슷하다. 다만 1980년대에는 인천의 인구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이 다소 높다.

서울시의 인구변화를 보면 1980-1995년 기간동안 종로구와 중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2.9%와 -3.9%로 도심에서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그 외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인구증가를 주도한 구는 도봉/노원/강북, 강서/양천, 강남/서초, 강동/송파구 등 서울 외부시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지역이다.

이는 서울의 인구가 대규모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재입지 하였음을 보여준다.

인천, 경기 지역의 인구변화를 보면 인천의 도심인 중구, 동구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은 인구증가 현상이 현저하다. 경기도는 안산(18.6%), 시흥/과천/군포(8.9%), 부천(8.4%), 고양시(8.0%), 수원시(5.9%), 안양시(5.6%), 성남시(5.6%)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주거단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이 높다. 전반적인 인구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주(-0.4%), 파주(-0.1%), 연천(-1.7%), 가평(-1.5%), 양평(-1.9%), 안성(-0.4%), 강화(-2.3%), 용진(-7.7%) 등 상당수의 군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부록, 표1 참조>

### 2. 수도권의 인구이동 특성

#### 1) 지역별 인구이동

1990-1995년 기간동안 수도권 유입인구는 362만명, 수도권 유출인구는 311만명으로 순유입인구는 약 51만명이다. 서울 유출인구는 329만명, 유입인구는 244만명으로 서울에서는 약 85만명이 순유출을 하였다. 반면 경기도는 115만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는데, 경기도 유입인구의 약 72%는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유입하였다.

한편, 수도권 취업자 중 1990-1995년



기간동안 서울에서 인천, 경기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65만 9천명인데 반해, 인천,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19만 6천명으로 5년동안 46만 2천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순유출되었다. 같은 경기도의 순유입인구는 40만명에 달하여 경기도 지역의 인구성장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서울 유출인구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임금수준이 높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유출이 서울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서울에서 고급 노동력의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진다. 평균임금 이하인 직업 가운데에서는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직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 직업 종사자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의 서울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계층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고임금 직종은 아니지만 장치기계조작 등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어 직장의 이전에 따른 종속성이 비교적 강한 직업종사자이다.

## 2) 신도시 이주자의 특성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신도시 가구주의

연령은 30-49세의 비중이 66.0%로서 서울시 56.2%와 경기도의 60.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5년전 서울로부터 신도시로 이주해 온 이주민의 평균 교육수준은 초급대졸이상(49.1%)로 5대 신도시 주민의 초급대졸이상(35.9%)보다 13.2%가 더 많고, 서울의 초급대졸이상비율(27.0%)보다는 22.1%가 더 많다. 5대 신도시의 초급대졸이상 학력은 분당구(56.5%)>안양시 동안구(35.2%)>고양시, 군포시(34.8%)>부천시 원미구(23.5%)로 분당구가 가장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초급대졸이상이 분당구(63.0%)>고양시(47.3%)>군포시(45.5%)>안양시 동안구(41.0%)>부천시 원미구(34.4%)의 순으로 5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분당구가 가장 많으며, 서울의 고학력자들은 주로 분당구와 고양시로 많이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 3. 소득수준의 변화

### 1) 소득수준 파악을 위한 지수 산정

인구 및 산업의 교외화를 통해 비서울 지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소득수준의 분포 변화를 통해 수도권 교외화의 현황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80~1995



기간동안 수도권 시·군·구별 거주자 소득수준 분포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의 연평균 임금소득과 거주자의 가구당 평균주택가격을 합하여 소득지수로 나타냈다.

시군구별 연평균 임금소득은 직업별 종사자수에 직업별 연평균 임금소득을 곱한 후 총인구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주택가격은 가구당 평균주택면적과 평당 주거용 토지가격을 곱하여 구하였다. 가구당 평균주택면적은 주택소유형태에 상관없이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의 2%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지가는 건설교통부(1995)가 발행한 「필지별 공시지가」 자료에서 주거용 필지의 지가를 단순평균하여 이용하였다. 1980, 1985, 1990년 지가는 1995년 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1998), 「지가동향」에 수록된 1980~1995년도 평균지가변동을 자료를 대입하여 역추계하였다.

## 2) 소득수준

1980-95년간을 1980-85, 1985-90, 1990-95로 나누어 소득성장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서울(18.6%→14.7%→7.5%)은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었고, 인천(17.2%→15.2%→11.4%)과 경기(15.3%→16.3%→10.5%)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어 서울과 비서울간의 소득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소득고성장지역은 90-95년 서울이 도봉>성북>광진>노원>구로구로 대부분 경기도와 연계지역으로 지가상승율이 높은 지역이며, 비서울이 분당구>고양시>연수구(인천)>군포시>동안구(평촌)로 모두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역시 지가상승율이 높은 지역이다.

5대 신도시의 소득성장율은 80-95년간 모든 지역이 경기도 연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분당>고양>원미구(부천)>군포>동안구(평촌) 순서로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 이후부터 주택평수, 주거용

<표 2-1> 수도권 시도별 평균소득수준 및 연평균소득증가율

시도별	평균소득수준				연평균소득증가율(%)			
	1995	1990	1985	1980	80-95	90-95	85-90	80-85
서울	67,110,997 (100%)	46,141,980 (100%)	22,140,938 (100%)	8,732,375 (100%)	13.6	7.5	14.7	18.6
인천	34,925,118 (52.0%)	19,748,006 (42.8%)	9,257,643 (41.8%)	3,916,847 (44.9%)	14.6	11.4	15.2	17.2
경기	30,111,261 (44.9%)	17,788,868 (38.6%)	7,857,214 (35.5%)	3,652,791 (41.8%)	14.1	10.5	16.3	15.3



지가, 임금의 모든 부문에서 줄곧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고성장을 계속하였다.

### III. 산업입지의 변화

#### 1. 수도권 산업의 공간분포 변화

##### 1) 지역별 공간분포 변화

1995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모두 1,234,976개인데, 이중 708,025개는 서울, 나머지 526,951개는 비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서울의 사업체수는 1981년 363,418개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서 57.3%로 계속 하락하였다. 반면 비서울의 사업체수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수도권의 종사자수는 1995년에 6,676,063명인데, 이중 3,874,597명은 서울에, 나머지 2,801,466명은 비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의 종사자수는 1981년 2,378,316명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에서 58%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비서울 지역의 종사자수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1년 수도권 사업체는 중구(10.5%), 종로구(6.6%), 동대문구(6.3%), 성동구(5.0%), 도봉구(4.7%), 등에 많이 분포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주로 서울 도심 및 그 주변이거나 서울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다. 1995년 수도권의 사업체는 서울은 서초/강남구(6.3%), 중구(5.5%), 송파/강동구(5.4%), 인천은 남/연수/남동구(4.5%), 경기도는 수원시(3.7%), 부천시(3.7%) 등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새로운 공업지대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81년 수도권 종사자는 중구(15.7%), 종로구(10.3%), 영등포구(6.0%), 구로구(5.4%)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수도권에서 이 지역들은 주로 서울 도심과 전통공업지역에 해당한다. 1995년 수도권 종사자는 서울은 서초/강남구(12.7%), 중구(6.3%), 영등포구(4.9%), 인천은 부평/계양/서구(4.5%), 경기도는 수원(3.5%) 등의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 2) 업종별 공간분포 변화

1981년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사업체 비중은 전기·가스·수도(26.2%)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건설(81.1%), 생산자서비스(77.3%), 운수·창고·통신(74.4%) 등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의 서울비중도 69.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95년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사업체 비중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서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운



수·창고·통신(70.6%), 생산자서비스(60.4%), 도소매·음식·숙박(57.6%)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제조업은 서울비중의 감소폭이 전체산업 평균(12.6%)보다 높은 16.8% 감소하여 52.3%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부록, 표2 참조>

1981년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종사자 비중은 건설(95%), 생산자서비스(84.9%), 운수·창고·통신(81%)에서 특히 높고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그 비중(57.4%)이 절반을 상회한다. 1995년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종사자 비중은 모든 업종에서 대폭 떨어졌으나 건설(77.7%), 생산자서비스(73%), 운수·창고·통신(66.5%)은 여전히 서울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제조업의 종사자는 전기·가스·수도와 농·수렵·임·어업을 제외하면 서울비중이 52.3%로 가장 많이 줄었다. <부록, 표3 참조>

수도권 산업에서 서울의 비중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하락하고, 비서울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 생산자서비스, 운수·창고·통신의 수도권내 서울비중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제조업의 경우 서울비중이 감소하고 비서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종사자수로 본 제조업의 수도권내 비서울 비중은 1995년 60.9%에 이를

정도로 높다.

### 3) 규모별 공간분포 변화

서울에 입지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인 사업체는 1980년 7,666개에서 1995년 20,295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수도권 대비 서울비중은 같은 기간 55.7%에서 37.8%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5년에 비서울 지역의 비중이 서울보다 훨씬 높아졌다.

규모별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비중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차차 높아지나, 예외적으로 종사자 5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다시 증가한다. 사업체수 기준보다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비서울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는 비서울 지역이 대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점차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종사자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사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80년 445,964명에서 1995년 369,866명으로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종사자가 1981년 2,378,316명에서 1995년 3,874,5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 주로 5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뒷받침한다. 요약하면 수도권 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서울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입지재편과정 속에서 서울은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비서울은 대규모 사업체 중심의 산업구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록, 표4 참조>

한편, 기업본사를 기준으로 한 분석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중심의 분석이 보여 주지 못하는 기능적 측면을 보여 준다. 특히 제조업은 기업규모의 대규모화와 기업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본사의 의사결정기능과 공장의 단순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분업은 분공장 개념을 만들어 내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기업본사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서 서울비중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비서울보다 높다. 매출액 순위가 높을수록 수도권 내에서 서울비중이 높아진다. 즉 서울과 비서울의 비중비교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서울비중이 더 높다. 대규모 기업은 85년 이후, 중소규모 기업은 90년 이후에 다시 서울비중이 증가했다.

조직유형별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 서울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단일공장기업인데, 이 유형의 서울비중은 무려 98.2%에 달한다. 반면 본사가 공장과 미분화된 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서울비중이 비서울보다 낮다. 본사와 공장의 공간적

분리여부에 관계없이 즉 모든 유형에서 수도권 내에서 서울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기업조직상 서울은 본사와 공장이 공간적으로 분화된 기업중심, 비서울은 본사와 공장이 미분화된 기업중심의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 2. 수도권 산업구조의 변화

### 1) 수도권 산업의 업종별 비중 변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은 도소매·음식·숙박(8.8%)과 제조업(3.2%) 등 업종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운수·창고·통신(9.3%), 생산자서비스(1.3%), 건설(1.1%)업 등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비서울 지역은 도소매·음식·숙박(9.8%), 제조업(1.1%) 비중이 감소하였고, 운수·창고·통신(5.0%), 생산자서비스(2.8%), 건설(1.7%)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서울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의 비중이 비서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운수·창고·통신과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부록, 표5 참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은 제조업(11.4%)과 건설업(9.3%)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도소매·음식·숙박(8.2%), 생산자서비스(6.6%), 사회·개인서비스업(4.6%)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비서울 지역은 제조업(17.6%) 비



중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사회·개인서비스(6.8%), 생산자서비스(3.9%) 등은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서울 지역에서 제조업은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1995년에 41.1%라는 높은 고용비중을 보이고 있다. <부록, 표6 참조>

## 2) 수도권 산업의 규모별 비중 변화

종사자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규모별 비중을 보면 서울과 비서울 모두 소규모 사업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종사자 5-19인 사업체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1980년 58.7%에서 1995년 82.2%로, 비서울의 경우 1980년 46.8%에서 1995년 71.2%로 각각 크게 증가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체 구성이 소규모화되고 있다. 규모별 비중의 지역간 차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 소규모의 비중이, 비서울 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자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수 기준과는 다른 측면을 보인다. 1980년에 서울과 비서울 모두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 비중이 많아 수도권 고용이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이러한 고용구조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소규

모 사업체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5-19인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1980년에 10%에서 1995년 39.2%로 크게 성장하였고, 반면에 5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37.6%에서 14.3%로 대폭 감소하였다. 비서울의 경우 서울과 달리 중간규모 중심의 고용구조로 변화되었다. 5-19인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1980년 5.9%에서 1995년 21.8%로 크게 증가하였고,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은 38.7%에서 23.5%로 하락하였다. <부록, 표7 참조>

## 3) 수도권 산업의 유형별 비중 변화

전국 차원이든 수도권 차원이든 노동집약형 산업은 퇴조하고 기술집약형 산업이 성장하는 구조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서울은 오히려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립형 산업의 비중도 전국이나 수도권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서울에서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 증가는 의복산업의 성장에 기인한다. 서울에서 의복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1990년대 들어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는 서울의 의복산업이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서울은 조립형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1980년대 들어 이들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비서울이 이들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첨단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IV. 변화요인 분석

##### 1. 수도권 인구분포 및 고용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분포 지표로는 단위면적( $\text{km}^2$ )당 인구밀도를, 고용분포 지표로는 단위면적( $\text{km}^2$ )당 고용밀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도심접근성 지표로는 도심(중구)과 각 지역간의 직선거리를, 주거특성 지표로는 주거면적을, 기반시설공급 지표로는 도로율을, 지가변수로는 주거용 토지의 단위면적당( $\text{m}^2$ 당) 가격을 이용하였다. 수도권 전체의 분석단위는 시,군,구로 하였다.

###### (1) 인구밀도와 고용밀도간의 관계

수도권에서 고용밀도와 인구밀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980, 1985, 1990, 1995년 모두 서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수도권 전체와 비서울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sup>2)</sup>. 즉, 수도권의 시,

군,구 차원에서는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인구밀도도 높으며, 특히 비서울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서울 수도권지역에서는 인구와 고용이 함께 분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인구밀도와 도심접근성간의 관계

고용중심지인 도심과의 접근성, 특히 비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은 인구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심접근성과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수도권 전체에서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1980년의 경우 이외에는 도심접근성과 인구밀도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비서울의 경우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구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3) 인구밀도와 주거면적간의 관계

수도권 전체에서 인구밀도와 주거면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1995년의 경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을 벗어나 교외로 갈수록 주거면적이 넓어짐

1) 비서울지역은 시,군 단위인 반면 서울은 구 단위라는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는 인구분포와 고용분포의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



을 의미한다.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다소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심에서의 거리와 주거면적간의 상관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1980년과 1985년에는 두 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다가 1990년부터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심에서 멀어지고 서울을 벗어날수록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1990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1995년 현재 두 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전체 및 비서울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서울지역에서의 인구증가는 중심도시인 서울과의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공급이 잘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서울지역에서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정도는 인구의 교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인구밀도와 도시기반시설간의 관계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서 도로율과 인구밀도와의

#### (5) 인구밀도와 지가간의 관계

수도권 전체적으로 인구밀도와 지가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표 4-1>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

수도권		고용밀도	도심과의 거리	주거지가	주거면적	도로율	학급당 학생수	1인당공원면적
1980(n=46)	인구밀도	0.480*	-0.754**	0.919**	-0.296	-	-	-0.027
1985(n=50)	인구밀도	0.464*	-0.714**	0.819**	-0.332*	0.919**	-0.033	0.041
1990(n=64)	인구밀도	0.419*	-0.693**	0.769**	-0.472*	0.887**	0.583*	0.088
1995(n=66)	인구밀도	0.442*	-0.710**	0.779**	-0.607**	0.860**	0.220	-0.036
서울		고용밀도	도심과의 거리	주거지가	주거면적	도로율	학급당 학생수	1인당공원면적
1980(n=17)	인구밀도	0.323	-0.551*	0.651**	-0.497*	-	-	-0.471
1985(n=17)	인구밀도	0.157	-0.267	0.069	-0.501*	0.593*	0.089	-0.034
1990(n=22)	인구밀도	0.008	-0.032	-0.234	-0.506*	0.541*	0.089	-0.143
1995(n=25)	인구밀도	-0.198	0.185	-0.349	-0.402*	0.357	0.287	-0.181
인천,경기		고용밀도	도심과의 거리	주거지가	주거면적	도로율	학급당 학생수	1인당공원면적
1980(n=29)	인구밀도	0.982**	-0.562*	0.873**	-0.608**	-	-	0.316
1985(n=33)	인구밀도	0.913**	-0.315	0.491*	-0.487*	0.993**	0.492*	0.119
1990(n=42)	인구밀도	0.876**	-0.384	0.525*	-0.578*	0.863**	0.580**	0.085
1995(n=41)	인구밀도	0.950**	-0.434*	0.602**	-0.490*	0.936**	0.492*	0.148

유의수준 \*\*0.01 \*0.05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지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비서울지역 역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지가가 높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1980년 이외에는 두 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인구밀도는 고용밀도 및 도심접근성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와 고용은 함께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면적 및 지가는 도심과의 거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가 교외화할 경우는 보다 넓은 주거면적과 낮은 지가에 의해 유인된다고 할 수 있다.

## 2) 수도권의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분포 지표로는  $\text{km}^2$ 당 인구밀도를, 고용기회 지표로는  $\text{km}^2$ 당 고용밀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도심접근성 지표로는 도심(중구)과 각 지역간의 직선 거리를, 고용시설 공급정도로는 공장면적을, 시설기반 공급정도로는 도로율을, 지가변수로는 업무용 토지의  $\text{m}^2$ 당 지가를 이용하였다.

### (1) 고용밀도와 인구밀도의 관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울에서는 고용분포와 인구분포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수도권 전체 및

비서울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고용밀도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서울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변지역에서 인구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2) 고용밀도와 도심접근성의 관계

서울과 비서울지역 모두 도심과 가까울수록 고용밀도가 높다. 비서울 지역의 경우는 서울보다 상관계수가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주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고용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서울 지역에서의 고용입지결정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3) 고용밀도와 도시기반시설의 관계

도시기반시설 공급정도를 나타내는 도로율과 고용분포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서울과 비서울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도로가 잘 정비된 지역일수록 고용밀도가 높으며, 서울보다는 비서울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서울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한다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4) 업무용 토지가격과 고용분포간의 관계

수도권 전체 및 서울에서는 업무지가와 고용밀도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고용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업무지가가 높다. 비서울지역 역시 서울의 경우보다 약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용밀도에 따른 업무용 지가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 (5) 고용밀도와 제조업면적간의 관계

비서울지역에서 제조업 공장면적과 고용밀도는 1980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1985년과 1990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1995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80년에는 공장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고용밀도가 높았으나 1995년에는 공장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고용밀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도권의 고용기회 증가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수도권지역 전체에서 고용밀도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도로시설이 양호하며, 인구밀도도 높은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있으며, 고용밀도가 높은 지역의 지가는 높다. 수도권지역을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도심접근성과 도로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고용밀도가 높다. 그러나 고용밀도와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고용밀도와 인구밀도간

<표 4-2> 고용밀도와의 상관관계

수도권		인구밀도	도심과의 거리	업무지가	도로율	
1980(n=46)	고용밀도	0.480*	-0.380*	0.756**	0.867**	
1985(n=50)	고용밀도	0.464*	-0.412*	0.732**	0.678**	
1990(n=64)	고용밀도	0.419*	-0.410*	0.734**	0.617**	
1995(n=66)	고용밀도	0.442*	-0.490*	0.780**	0.684**	
서울		인구밀도	도심과의 거리	업무지가	도로율	
1980(n=17)	고용밀도	0.323	-0.608**	0.831**		
1985(n=17)	고용밀도	0.157	-0.570**	0.742**	0.788**	
1990(n=22)	고용밀도	0.008	-0.560**	0.747**	0.569**	
1995(n=25)	고용밀도	-0.198	-0.508**	0.780**	0.645**	
인천, 경기		인구밀도	도심과의 거리	업무지가	도로율	공장면적
1980(n=29)	고용밀도	0.982**	-0.533*	0.334	0.867**	0.613**
1985(n=33)	고용밀도	0.913**	-0.316	0.455*	0.958**	0.266
1990(n=42)	고용밀도	0.876**	-0.365*	0.346*	0.826**	0.262
1995(n=41)	고용밀도	0.950**	-0.390*	0.457*	0.909**	-0.486*



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비서울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고용밀도가 높다. 즉, 비서울지역에서는 서울 접근성과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수도권 인구 및 고용증가의 상관관계

### 1) 수도권 인구증가와 고용증가의 상관관계

고용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상관관계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도권 전체에서 보면, 1980-85년과 1985-90년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1995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서 1990년까지는 인구증가와 고용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1995년부터는 그 양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비서울지역 역시 1990년 이전까지는 인구증가와 고용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증가가 반드시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기회 중 제조업고용의 증가율과 인구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1980-85년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날 뿐 이후부터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1985년까지는 수도권 인구증가의 상당부분이 제조업의 분산에 따른 직주근접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의 수도권 인구증가는 직주근접적 요인 이외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3> 인구증가율과의 상관관계

수도권		고용증가율	제조업 고용증가율	공장면적 증가율	주택증가율	주택가격	도로증가율
1980-1985	인구증가율	0.781**	0.590**		0.996**	0.037	
1985-1990	인구증가율	0.524**	0.182		0.993**	0.046	0.164
1990-1995	인구증가율	0.169	0.179		0.478**	-0.154	0.193
서울							
1980-1985	인구증가율	0.868**	0.641**		0.993**	-0.229	
1985-1990	인구증가율	0.356	-0.233		0.994**	-0.196	0.594*
1990-1995	인구증가율	0.043	0.016		0.463*	-0.017	-0.154
인천,경기							
1980-1985	인구증가율	0.773**	0.569**	0.679**	0.998**	0.514**	0.728**
1985-1990	인구증가율	0.560**	0.287	-0.086	0.993**	0.389	0.103
1990-1995	인구증가율	0.318	0.247	0.027	0.993**	0.316	0.748**



&lt;표 4-4&gt; 고용증가율과의 상관관계

수도권		인구 증가율	지가 증가율	업무지가	공장면적 증가율	공장면적	도로 증가율	권역
1980-85	고용증가율	0.781**	0.159	-0.372		0.512**		0.105
1985-90	고용증가율	0.524**		-0.09	0.201	0.484**	0.255	0.100
1990-95	고용증가율	0.169	-0.28	-0.377	0.640**	0.196	0.241	0.285
서울								
1980-85	고용증가율	0.868**	0.559*	-0.516*		-0.358		
1985-90	고용증가율	0.356	0.475	0.186		-0.238	0.679**	
1990-95	고용증가율	0.043	-0.210	-0.217		-0.817*	0.308	
비서울								
1980-85	고용증가율	0.773**	0.197	0.126	0.774**	0.537**	0.709**	-0.097
1985-90	고용증가율	0.560**		0.150	0.133	0.489**	0.143	-0.036
1990-95	고용증가율	0.318	-0.248	0.015	.675**	0.136	0.139	-0.143

## 2) 인구 및 고용증가와 기타 변수와의 상관관계

주택증가율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가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이든 비서울지역이든 인구증가는 주택공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인구증가율과 주택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어 주택증가가 반드시 인구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예컨대,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의 경우 주택수는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주택만큼 증가하지 않음).

인구증가율과 도로증가율의 상관관계는 비서울지역의 경우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서울지역에서는 도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서울지역에서 공장면적증가율과 고용증가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고용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고용증가율과 도로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비서울지역에서 1980-1985년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서울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증가는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서울지역의 기반시설 증가는 인구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lt;표 4-5&gt; 수도권정비계획(1982-1996)의 권역별 전략 및 행정구역

권역	기본전략	시군구
이전축진	집중규제	서울시, 의정부시, 고양군, 양주군(주내, 백석, 장흥), 남양주군, 포천군(소흘), 광주군(동부, 서부)
제한정비	과밀억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시흥군, 화성군(오산, 반월, 매송, 봉담, 정남, 동탄, 태안), 용인군(구성, 수지, 남사, 기흥), 김포군(김포, 고촌, 검단, 계양), 평택군(진위, 서탄)
개발유도	이전수용	송탄시, 반월시, 평택시, 화성군(송신, 서산, 마도, 남양, 비봉, 팔탄, 장안, 양감, 우정, 향남), 평택군(진위, 서탄 이외), 안성군(안성, 대덕, 미양, 공도, 원곡)
자연보전	한강보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광주군(동부, 서부 이외), 용인군(용인, 포곡, 모현, 이동, 원삼, 외사, 남사), 안성군(보계, 금광, 서운, 양성, 일죽, 삼죽, 고삼)
개발유보	특수개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군, 강화군, 포천군(소흘 이외), 양주군(남면, 은현, 회천, 광적), 김포군(양촌, 대곶, 월곶, 하성, 통진), 용진군

### 3. 수도권 주거 및 산업입지 변화의 정책적 요인

서울에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수도권 정책은 시장요인과 관계없이 수도권내 기업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내에서의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는 계획들과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기본계획법에 근거한 수도권정비계획은 가장 구체적으로 수도권내의 산업입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1982-1996)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정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권역별로 상이한 공업입지구제를 적용하여 공업

의 재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내 산업분산은 개발유도권역에 국한시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과 산업시설을 수도권내에서 분산시키려 유도하고 있다.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77)은 공업배치범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또한 반월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의 산업시설을 최초로 이전하려 시도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과 기타 국가차원의 각종 계획들은 공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계획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서울, 인천, 경기 시부의 산업시설을 수도권 남서방향의 경기 군부지역으로 분산 입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서울을 벗어나 교외의



주변지역에 새로 입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제조업의 교외화와 같은 수도권 산업공간구조의 변화는 순수한 시장적인 요인에 정책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정책들은 원천적으로 서울에서의 공장의 신설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이 비서울에서 생겨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 V. 결론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1980-1995년간의 공간분포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80-1995년 기간동안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인구비중은 62.9%에서 50.7%로 줄어들었으며, 서울의 사업체수 비중은 70%에서 57.3%로, 서울의 종사자수 비중은 72%에서 58%로 떨어졌다.

주거입지의 공간변화는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한 서울인구의 비서울 지역으로의 이동현상에 주로 기인되는데,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주로 젊고, 고학력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유출인구의 구체적인 직업별 특성을 보면 임금수준이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도심인 종로구와 중구의 인구는 감소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설된 외

부시가지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강서구, 양천구 등이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천과 경기 역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와 안산시, 시흥군,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고양시 등의 인구증가가 현저하다.

주거입지의 변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는 서울은 완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와의 인접지역의 소득 성장이 높다. 비서울 지역은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개발지역에서 지가, 주택평수, 임금의 3부문에서 모두 고성장을 계속하였다.

1980-1995년 기간동안 수도권 산업공간은 1981년에 서울 도심과 전통공업지역이 수도권의 산업중심지였으나, 1995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인천, 경기의 몇몇 시군구 지역이 새로운 산업중심공간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서울 도심과 전통공업지역에 입지했던 사업체들이 비서울 지역으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비서울 지역내에서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산업공간에서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은 비서울 지역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운수·창고·통신과 생산자서비스 등의 고차서비스는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공간분업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산업은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 중에서 특히 물류와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은 최근 급증하여 산업구조가 계속 서비스중심화하고 있다. 즉, 수도권은 노동집약형 산업은 퇴조하고 기술집약형 산업이 성장하는 구조변화를 보인다. 다만 서울은 의류산업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면에서 볼 때 서울은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본사중심으로 비서울은 단순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공장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조직상으로 볼 때 서울은 본사와 공장이 공간적으로 분화된 기업중심으로 비서울은 본사와 공장이 미분화된 기업중심으로 산업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울의 사업체는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용구조도 계속적으로

소규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서울의 경우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소규모화 경향을 보이고, 고용에 있어서는 규모간에 평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은 사업체수나 고용면에서 비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입지와 산업입지의 공간변화의 특성을 통해 서울과 비서울의 산업 및 경제활동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심도시인 서울과 주변지역이 유기적인 연계 하에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주거입지의 공간변화로 인한 직주원격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광역교통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간 연계와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산업공간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고철·박종택(1993),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구이동 및 주거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 김창석·남진(1996), “수도권지역 기업 본사의 입지이전 경로와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1권, 제1호.
3.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경기도(1985), 『수도권정비계획(안)』.
4. 윤인숙(1998), “서울시 통근자의 직주불일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전명진(1995), “다핵도시공간구조하에서의



- 통근행태,” 『국토계획』, 제31권, 제2호.
6. 하성규·김재익(1992), “거주지와 직장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7권, 제1호.
7. 경제기획원(1981, 1986, 1991),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8. 노동부(1996), 『1995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9.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1981, 1986, 1991, 1996), 『지방세정연감』.
10. 내무부(1996), 『지방세정연감』.
11. 내무부(1981, 1986, 1991, 1996), 『한국도시연감』.
12. 서울특별시(1996), 『지방세정연감』.
13. 통계청(1980, 1985, 1990, 1995),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14. 통계청(1995),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5. 통계청(1981, 1986, 1991, 199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6. Cervero, Robert(1989a), “Jobs-Housing Balancing and Regional Mo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55, No. 2.
17. Cervero, Robert(1989b), “Suburban Employment Centers: Probing the Influence of Site Features on the Journey-to-Work,”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 8, No. 2.
18. Drewett, R., Goddard, J., Spence, N.(1976), “Urban Britain: Beyond Containment,” in Berry, B. J. L., ed.,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Sage Pub. Inc.
19. Hahn, Yeong-Joo(1989), “Regional Impact of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1968-1985,”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12.
20. Holzer, Harry J(1991),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What has the Evidence Shown?”, *Urban Studies*, Vol. 28, No. 1.



## 〈 부 록 〉

&lt;표 1&gt; 수도권 시·군·구별 인구 및 연평균 성장률, 1980-1995

(단위 : 명, %)

구 분	인구 1980	성장률 80-85	인구 1985	성장률 85-90	인구 1990	성장률 90-95	인구 1995	성장률 80-95
전 국	37,436,315	1.5	40,448,486	1.4	43,410,899	0.5	44,608,726	1.2
수도권	13,298,241	3.5	15,820,156	3.2	18,586,128	1.7	20,189,146	2.8
서울시	8,364,379	2.8	9,639,110	1.9	10,612,577	-0.7	10,231,217	1.3
종로구	292,483	-1.9	265,897	-1.8	243,331	-4.9	190,283	-2.9
중구	242,584	-2.9	209,658	-2.2	188,118	-6.5	135,583	-3.9
용산구	333,525	-0.5	326,076	-1.5	303,022	-3.5	253,841	-1.8
성동/광진구	687,707	1.8	751,418	1.2	799,039	-2.2	716,733	0.3
동대문/중랑	848,081	2.1	942,617	0.2	951,784	-2.1	855,640	0.1
성북구	588,759	-0.2	583,791	-1.1	551,540	-2.4	490,310	-1.2
도봉/노원/강북	753,302	2.3	846,972	6.1	1,151,799	2.7	1,315,475	3.7
은평구	382,891	2.9	441,939	1.2	469,891	0.6	485,287	1.6
서대문구	419,541	-0.7	404,582	-0.9	387,089	-1.5	359,873	-1.0
마포구	432,814	0.4	441,810	-0.3	435,630	-2.4	386,042	-0.8
강서/양천	501,182	5.9	674,270	5.4	881,639	1.8	963,718	4.4
구로/금천	568,737	3.7	683,968	1.8	748,072	-2.8	650,036	0.9
영등포구	431,992	0.7	446,600	1.0	470,109	-2.5	413,952	-0.3
동작구	392,916	0.7	405,979	-0.1	403,724	0.9	422,468	0.5
관악구	501,624	2.1	556,156	0.6	574,255	-0.9	548,318	0.6
강남/서초	474,880	9.7	771,205	2.8	886,761	0.7	919,554	4.4
강동/송파	511,361	11.0	886,172	5.5	1,166,774	-0.7	1,124,104	5.3
비서울	4,933,862	4.5	6,181,046	5.1	7,973,551	4.4	9,957,929	4.7
인천시	1,083,906	4.9	1,386,911	5.4	1,817,919	4.1	2,230,818	4.8
중구	84,252	-0.2	83,564	-0.5	81,603	-3.6	68,082	-1.4
동구	162,487	-2.1	146,413	-3.3	124,276	-4.3	100,240	-3.2
남/연수/남동	487,025	4.8	617,842	4.3	764,949	5.8	1,021,786	4.9
부평/계양/서	350,142	8.6	539,092	9.0	847,091	4.1	1,040,710	7.3
경기도	3,849,956	4.4	4,794,135	5.0	6,155,632	4.5	7,727,111	4.6
수원시	310,476	6.5	430,752	8.1	644,805	3.2	755,550	5.9
성남시	376,840	3.4	447,692	3.8	540,754	9.5	869,094	5.6
의정부시	133,177	4.0	162,700	5.3	212,352	5.3	276,111	4.9
안양시	253,560	7.1	361,577	5.7	481,291	4.1	591,106	5.6
부천시	221,463	14.5	456,292	7.6	667,993	3.1	779,412	8.4
양주군	73,780	0.2	74,407	2.6	84,672	2.2	94,507	1.7
동두천시	60,144	2.6	68,633	0.8	71,449	0.0	71,579	1.2
남양주군	191,479	4.1	234,805	5.5	309,686	3.6	371,233	4.4
여주군	98,236	-1.0	93,347	0.7	96,895	-1.0	92,050	-0.4
평택시	234,356	1.0	246,870	1.9	271,826	2.8	312,927	1.9
화성군/오산시	217,090	0.8	225,941	1.8	246,852	-1.5	229,078	0.4
시흥 등*	143,043	9.4	228,799	10.0	376,480	7.4	545,541	8.9
광명시	145,870	8.2	219,611	8.1	328,593	1.3	350,914	5.9
파주군	165,098	0.0	164,804	2.3	185,028	-2.5	163,379	-0.1
고양군	155,601	3.3	183,125	5.8	244,975	15.0	518,282	8.0
광주군/하남	106,746	7.0	151,857	3.2	177,918	2.5	201,968	4.3
연천군	67,054	-0.7	64,863	-1.1	61,287	-3.2	52,116	-1.7
포천군	109,118	-0.1	108,581	0.4	110,958	1.3	118,558	0.6
가평군	62,007	-1.6	57,231	-2.3	50,957	-0.5	49,627	-1.5
양평군	93,408	-1.7	85,728	-2.1	77,166	-1.8	70,603	-1.9
이천군	109,219	2.7	124,905	3.5	148,719	0.9	155,332	2.3
용인군	135,572	2.5	153,787	4.0	187,993	5.1	242,643	3.9
안성군	127,934	-1.0	121,801	-0.6	118,285	0.3	120,133	-0.4
김포군	96,876	2.7	110,976	0.6	114,583	-1.2	107,684	0.7
강화군	90,828	-1.8	83,037	-3.0	71,612	-2.0	64,746	-2.3
옹진군	39,841	-2.4	35,398	-11.3	20,085	-9.3	12,624	-7.7
안산시	31,140	22.6	96,616	19.2	252,418	14.1	510,314	18.6

주 : \* 은 시흥/파천/군포/의왕시를 말함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2> 수도권 사업체의 업종별 지역비중

	수량(개)					비중(%)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전체산업(1981)	519,863	363,418	156,445	45,010	111,435	100	69.9	30.1	8.7	21.4
농수림임어업	84	49	35	4	31	100	58.3	41.7	4.8	36.9
제조업	77,488	53,527	23,961	6,259	17,702	100	69.1	30.9	8.1	22.8
전기가스수도	130	34	96	35	61	100	26.2	73.8	26.9	46.9
건설	5,874	4,763	1,111	332	779	100	81.1	18.9	5.7	13.3
도소매음식숙박	325,571	227,265	98,306	29,057	69,249	100	69.8	30.2	8.9	21.3
운수창고통신	4,242	3,157	1,085	472	613	100	74.4	25.6	11.1	14.5
생산자서비스	28,484	22,009	6,475	1,977	4,498	100	77.3	22.7	6.9	15.8
사회개인서비스	77,990	52,614	25,376	6,874	18,502	100	67.5	32.5	8.8	23.7
전체산업(1986)	728,778	483,986	244,792	59,146	185,646	100	66.4	33.6	8.1	25.5
농수림임어업	157	71	86	1	85	100	45.2	54.8	0.6	54.1
제조업	102,319	68,090	34,229	7,430	26,799	100	66.5	33.5	7.3	26.2
전기가스수도	266	115	151	23	128	100	43.2	56.8	8.6	48.1
건설	13,069	9,528	3,541	797	2,744	100	72.9	27.1	6.1	21.0
도소매음식숙박	424,853	283,395	141,458	35,508	105,950	100	66.7	33.3	8.4	24.9
운수창고통신	6,538	4,388	2,150	517	1,633	100	67.1	32.9	7.9	25.0
생산자서비스	46,939	32,687	14,252	3,442	10,810	100	69.6	30.4	7.3	23.0
사회개인서비스	134,637	85,712	48,925	11,428	37,497	100	63.7	36.3	8.5	27.9
전체산업(1991)	944,812	581,092	363,720	87,708	276,012	100	61.5	38.5	9.3	29.2
농수림임어업	199	87	112	4	108	100	43.7	56.3	2.0	54.3
제조업	150,749	90,509	60,240	14,128	46,112	100	60.0	40.0	9.4	30.6
전기가스수도	201	99	102	16	86	100	49.3	50.7	8.0	42.8
건설	24,217	15,083	9,134	2,034	7,100	100	62.3	37.7	8.4	29.3
도소매음식숙박	521,847	325,104	196,743	48,291	148,452	100	62.3	37.7	9.3	28.4
운수창고통신	8,772	5,921	2,851	738	2,113	100	67.5	32.5	8.4	24.1
생산자서비스	56,622	37,775	18,847	4,490	14,357	100	66.7	33.3	7.9	25.4
사회개인서비스	182,205	106,514	75,691	18,007	57,684	100	58.5	41.5	9.9	31.7
전체산업 (1995)	1,234,976	708,025	526,951	126,670	400,281	100	57.3	42.7	10.3	32.4
농수림임어업	325	117	208	31	177	100	36.0	64.0	9.5	54.5
제조업	156,685	81,936	74,749	17,154	57,595	100	52.3	47.7	10.9	36.8
전기가스수도	362	154	208	38	170	100	42.5	57.5	10.5	47.0
건설	29,587	16,929	12,658	2,952	9,706	100	57.2	42.8	10.0	32.8
도소매음식숙박	660,401	380,657	279,744	68,728	211,016	100	57.6	42.4	10.4	32.0
운수창고통신	102,082	72,084	29,998	6,699	23,299	100	70.6	29.4	6.6	22.8
생산자서비스	92,101	55,617	36,484	8,652	27,832	100	60.4	39.6	9.4	30.2
사회개인서비스	193,433	100,531	92,902	22,416	70,486	100	52.0	48.0	11.6	36.4

자료: 경제기획원,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1, 1986, 199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lt;표 3&gt; 수도권 종사자의 업종별 지역비중

	수량(인)					비중(%)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전체산업(1981)	3,309,649	2,378,316	931,333	283,149	648,184	100	71.9	28.1	8.6	19.6
농수림업어업	2,637	2,015	622	134	488	100	76.4	23.6	5.1	18.5
제조업	1,263,561	725,132	538,429	166,524	371,905	100	57.4	42.6	13.2	29.4
전기가스수도	8,569	5,657	2,912	1,256	1,656	100	66.0	34.0	14.7	19.3
건설	483,423	459,110	24,313	5,088	19,225	100	95.0	5.0	1.1	4.0
도소매음식숙박	798,702	601,069	197,633	60,154	137,479	100	75.3	24.7	7.5	17.2
운수창고통신	152,921	123,806	29,115	11,317	17,798	100	81.0	19.0	7.4	11.6
생산자서비스	244,913	208,030	36,883	11,392	25,491	100	84.9	15.1	4.7	10.4
사회개인서비스	354,923	253,497	101,426	27,284	74,142	100	71.4	28.6	7.7	20.9
전체산업(1986)	4,375,371	2,869,444	1,505,927	410,676	1,095,251	100	65.6	34.4	9.4	25.0
농수림업어업	5,756	2,744	3,012	62	2,950	100	47.7	52.3	1.1	51.3
제조업	1,683,689	884,149	799,540	208,661	590,879	100	52.5	47.5	12.4	35.1
전기가스수도	14,881	10,684	4,197	1,014	3,183	100	71.8	28.2	6.8	21.4
건설	375,377	317,078	58,299	25,821	32,478	100	84.5	15.5	6.9	8.7
도소매음식숙박	1,145,236	821,298	323,938	87,347	236,591	100	71.7	28.3	7.6	20.7
운수창고통신	205,486	148,430	57,056	19,161	37,895	100	72.2	27.8	9.3	18.4
생산자서비스	367,161	298,423	68,738	20,102	48,636	100	81.3	18.7	5.5	13.2
사회개인서비스	577,785	386,638	191,147	48,508	142,639	100	66.9	33.1	8.4	24.7
전체산업(1991)	5,772,472	3,629,436	2,143,036	572,974	1,570,062	100	62.9	37.1	9.9	27.2
농수림업어업	8,315	6,063	2,252	121	2,131	100	72.9	27.1	1.5	25.6
제조업	2,270,172	1,136,899	1,133,273	291,186	842,087	100	50.1	49.9	12.8	37.1
전기가스수도	12,380	7,733	4,647	1,193	3,454	100	62.5	37.5	9.6	27.9
건설	472,863	386,673	86,190	40,624	45,566	100	81.8	18.2	8.6	9.6
도소매음식숙박	1,473,926	1,020,538	453,388	117,317	336,071	100	69.2	30.8	8.0	22.8
운수창고통신	256,669	187,239	69,430	23,365	46,065	100	72.9	27.1	9.1	17.9
생산자서비스	534,957	418,063	116,894	31,780	85,114	100	78.1	21.9	5.9	15.9
사회개인서비스	743,190	466,228	276,962	67,388	209,574	100	62.7	37.3	9.1	28.2
전체산업(1995)	6,676,063	3,874,597	2,801,466	681,840	2,119,626	100	58.0	42.0	10.2	31.7
농수림업어업	9,607	5,241	4,366	323	4,043	100	54.6	45.4	3.4	42.1
제조업	1,889,020	737,948	1,151,072	285,953	865,119	100	39.1	60.9	15.1	45.8
전기가스수도	17,145	7,156	9,989	1,828	8,161	100	41.7	58.3	10.7	47.6
건설	497,380	386,597	110,783	29,865	80,918	100	77.7	22.3	6.0	16.3
도소매음식숙박	1,978,712	1,296,776	681,936	168,461	513,475	100	65.5	34.5	8.5	25.9
운수창고통신	384,617	255,802	128,815	35,887	92,928	100	66.5	33.5	9.3	24.2
생산자서비스	813,770	594,379	219,391	54,466	164,925	100	73.0	27.0	6.7	20.3
사회개인서비스	1,085,812	590,698	495,114	105,057	390,057	100	54.4	45.6	9.7	35.9

자료: 경제기획원, 종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1, 1986, 199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표 4> 수도권 산업의 종사자규모별 지역비중

	사업체수(개)					비중(%)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1980										
계	13,760	7,666	6,094		6,094	100	55.7	44.3		44.3
5-19인	7,354	4,501	2,853		2,853	100	61.2	38.8		38.8
20-99인	4,632	2,363	2,269		2,269	100	51.0	49.0		49.0
100-499인	1,486	664	822		822	100	44.7	55.3		55.3
500인이상	288	138	150		150	100	47.9	52.1		52.1
1985										
계	24,394	13,636	10,758	1,998	8,760	100	55.9	44.1	8.2	35.9
5-19인	14,186	9,073	5,113	831	4,282	100	64.0	36.0	5.9	30.2
20-99인	8,137	3,791	4,346	853	3,493	100	46.6	53.4	10.5	42.9
100-499인	1,822	678	1,144	260	884	100	37.2	62.8	14.3	48.5
500인이상	249	94	155	54	101	100	37.8	62.2	21.7	40.6
1990										
계	40,262	17,523	22,739	4,424	18,315	100	43.5	56.5	11.0	45.5
5-19인	25,825	12,388	13,437	2,463	10,974	100	48.0	52.0	9.5	42.5
20-99인	12,369	4,592	7,777	1,628	6,149	100	37.1	62.9	13.2	49.7
100-499인	1,804	465	1,339	271	1,068	100	25.8	74.2	15.0	59.2
500인이상	264	78	186	62	124	100	29.5	70.5	23.5	47.0
1995										
계	53,669	20,295	33,374	7,680	25,694	100	37.8	62.2	14.3	47.9
5-19인	40,449	16,678	23,771	5,315	18,456	100	41.2	58.8	13.1	45.6
20-99인	11,462	3,265	8,197	2,030	6,167	100	28.5	71.5	17.7	53.8
100-499인	1,555	304	1,261	291	970	100	19.4	80.6	18.6	62.0
500인이상	193	48	145	44	101	100	24.9	75.1	22.8	52.3
	종사자수(인)					비중				
1980										
계	930,528	445,964	484,564		484,564	100	47.9	52.1		52.1
5-19인	73,110	44,662	28,448		28,448	100	61.1	38.9		38.9
20-99인	206,082	103,304	102,778		102,778	100	50.1	49.9		49.9
100-499인	296,358	130,425	165,933		165,933	100	44.0	56.0		56.0
500인이상	354,978	167,573	187,405		187,405	100	47.2	52.8		52.8
1985										
계	1,159,482	483,235	676,247	175,364	500,883	100	41.7	58.3	15.1	43.2
5-19인	141,331	87,560	53,771	9,420	44,351	100	62.0	38.0	6.7	31.4
20-99인	348,936	156,222	192,714	38,269	154,445	100	44.8	55.2	11.0	44.3
100-499인	350,784	127,550	223,234	53,615	169,619	100	36.4	63.6	15.3	48.4
500인이상	318,431	111,903	206,528	74,060	132,468	100	35.1	64.9	23.3	41.6
1990										
계	1,447,881	470,617	977,264	237,165	740,099	100	32.5	67.5	16.4	51.1
5-19인	259,849	120,417	139,432	26,461	112,971	100	46.3	53.7	10.2	43.5
20-99인	483,721	169,905	313,816	65,912	247,904	100	35.1	64.9	13.6	51.2
100-499인	344,422	90,175	254,247	54,112	200,135	100	26.2	73.8	15.7	58.1
500인이상	359,889	90,120	269,769	90,680	179,089	100	25.0	75.0	25.2	49.8
1995										
계	1,383,757	369,866	1,013,891	245,790	768,101	100	26.7	73.3	17.8	55.5
5-19인	366,341	144,953	221,388	50,609	170,779	100	39.6	60.4	13.8	46.6
20-99인	435,169	114,180	320,989	78,970	242,019	100	26.2	73.8	18.1	55.6
100-499인	291,370	57,872	233,498	56,624	176,874	100	19.9	80.1	19.4	60.7
500인이상	290,877	52,861	238,016	59,587	178,429	100	18.2	81.8	20.5	61.3

자료: 통계청,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lt;표 5&gt; 수도권 사업체수의 업종별 비중 변화

	수량 (개)					비중 (%)				
	수도권	서울시	비서울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서울시	비서울	인천시	경기도
1981										
전체산업	519,863	363,418	156,445	45,010	111,435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임어업	84	49	35	4	31	0.0	0.0	0.0	0.0	0.0
제조업	77,488	53,527	23,961	6,259	17,702	14.9	14.7	15.3	13.9	15.9
전기가스수도	130	34	96	35	61	0.0	0.0	0.1	0.1	0.1
건설	5,874	4,763	1,111	332	779	1.1	1.3	0.7	0.7	0.7
도소매음식숙박	325,571	227,265	98,306	29,057	69,249	62.6	62.5	62.8	64.6	62.1
운수창고통신	4,242	3,157	1,085	472	613	0.8	0.9	0.7	1.0	0.6
생산자서비스	28,484	22,009	6,475	1,977	4,498	5.5	6.1	4.1	4.4	4.0
사회개인서비스	77,990	52,614	25,376	6,874	18,502	15.0	14.5	16.2	15.3	16.6
1986										
전체산업	728,778	483,986	244,792	59,146	185,646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임어업	157	71	1,986	1	85	0.0	0.0	0.8	0.0	0.0
제조업	102,319	68,090	34,229	7,430	26,799	14.0	14.1	14.0	12.6	14.4
전기가스수도	266	115	151	23	128	0.0	0.0	0.1	0.0	0.1
건설	13,069	9,528	3,541	797	2,744	1.8	2.0	1.4	1.3	1.5
도소매음식숙박	424,853	283,395	141,458	35,508	105,950	58.3	58.6	57.8	60.0	57.1
운수창고통신	6,538	4,388	2,150	517	1,633	0.9	0.9	0.9	0.9	0.9
생산자서비스	46,939	32,687	14,252	3,442	10,810	6.4	6.8	5.8	5.8	5.8
사회개인서비스	134,637	85,712	48,925	11,428	37,497	18.5	17.7	20.0	19.3	20.2
1991										
전체산업	944,812	581,092	363,720	87,708	276,012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임어업	199	87	112	4	108	0.0	0.0	0.0	0.0	0.0
제조업	150,749	90,509	60,240	14,128	46,112	16.0	15.6	16.6	16.1	16.7
전기가스수도	201	99	102	16	1,986	0.0	0.0	0.0	0.0	0.7
건설	24,217	15,083	9,134	2,034	7,100	2.6	2.6	2.5	2.3	2.6
도소매음식숙박	521,847	325,104	196,743	48,291	148,452	55.2	55.9	54.1	55.1	53.8
운수창고통신	8,772	5,921	2,851	738	2,113	0.9	1.0	0.8	0.8	0.8
생산자서비스	56,622	37,775	18,847	4,490	14,357	6.0	6.5	5.2	5.1	5.2
사회개인서비스	182,205	106,514	75,691	18,007	57,684	19.3	18.3	20.8	20.5	20.9
1995										
전체산업	1,234,976	708,025	526,951	126,670	400,281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임어업	325	117	208	31	177	0.0	0.0	0.0	0.0	0.0
제조업	156,685	81,936	74,749	17,154	57,595	12.7	11.6	14.2	13.5	14.4
전기가스수도	362	154	208	38	170	0.0	0.0	0.0	0.0	0.0
건설	29,587	16,929	12,658	2,952	9,706	2.4	2.4	2.4	2.3	2.4
도소매음식숙박	660,401	380,657	279,744	68,728	211,016	53.5	53.8	53.1	54.3	52.7
운수창고통신	102,082	72,084	29,998	6,699	23,299	8.3	10.2	5.7	5.3	5.8
생산자서비스	92,101	55,617	36,484	8,652	27,832	7.5	7.9	6.9	6.8	7.0
사회개인서비스	193,433	100,531	92,902	22,416	70,486	15.7	14.2	17.6	17.7	17.6

자료: 경제기획원,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1, 1986, 199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lt;표 6&gt; 수도권 종사자수의 업종별 비중 변화

	수량 (인)					비중 (%)				
	수도권	서울시	비서울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서울시	비서울	인천시	경기도
1981										
전체산업	3,309,649	2,378,316	931,333	283,149	648,184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업어업	2,637	2,015	622	134	488	0.1	0.1	0.1	0.0	0.1
제조업	1,263,561	725,132	538,429	166,524	371,905	38.2	30.5	57.8	58.8	57.4
전기가스수도	8,569	5,657	2,912	1,256	1,656	0.3	0.2	0.3	0.4	0.3
건설	483,423	459,110	24,313	5,088	19,225	14.6	19.3	2.6	1.8	3.0
도소매음식숙박	798,702	601,069	197,633	60,154	137,479	24.1	25.3	21.2	21.2	21.2
운수창고통신	152,921	123,806	29,115	11,317	17,798	4.6	5.2	3.1	4.0	2.7
생산자서비스	244,913	208,030	36,883	11,392	25,491	7.4	8.7	4.0	4.0	3.9
사회개인서비스	354,923	253,497	101,426	27,284	74,142	10.7	10.7	10.9	9.6	11.4
1986										
전체산업	4,375,371	2,869,444	1,505,927	410,676	1,095,251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업어업	5,756	2,744	3,012	62	2,950	0.1	0.1	0.2	0.0	0.3
제조업	1,683,689	884,149	799,540	208,661	590,879	38.5	30.8	53.1	50.8	53.9
전기가스수도	14,881	10,684	4,197	1,014	3,183	0.3	0.4	0.3	0.2	0.3
건설	375,377	317,078	58,299	25,821	32,478	8.6	11.1	3.9	6.3	3.0
도소매음식숙박	1,145,236	821,298	323,938	87,347	236,591	26.2	28.6	21.5	21.3	21.6
운수창고통신	205,486	148,430	57,056	19,161	37,895	4.7	5.2	3.8	4.7	3.5
생산자서비스	367,161	298,423	68,738	20,102	48,636	8.4	10.4	4.6	4.9	4.4
사회개인서비스	577,785	386,638	191,147	48,508	142,639	13.2	13.5	12.7	11.8	13.0
1991										
전체산업	5,772,472	3,629,436	2,143,036	572,974	1,570,062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업어업	8,315	6,063	2,252	121	2,131	0.1	0.2	0.1	0.0	0.1
제조업	2,270,172	1,136,899	1,133,273	291,186	842,087	39.3	31.3	52.9	50.8	53.6
전기가스수도	12,380	7,733	4,647	1,193	3,454	0.2	0.2	0.2	0.2	0.2
건설	472,863	386,673	86,190	40,624	45,566	8.2	10.7	4.0	7.1	2.9
도소매음식숙박	1,473,926	1,020,538	453,388	117,317	336,071	25.5	28.1	21.2	20.5	21.4
운수창고통신	256,669	187,239	69,430	23,365	46,065	4.4	5.2	3.2	4.1	2.9
생산자서비스	534,957	418,063	116,894	31,780	85,114	9.3	11.5	5.5	5.5	5.4
사회개인서비스	743,190	466,228	276,962	67,388	209,574	12.9	12.8	12.9	11.8	13.3
1995										
전체산업	6,676,063	3,874,597	2,801,466	681,840	2,119,626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수림업어업	9,607	5,241	4,366	323	4,043	0.1	0.1	0.2	0.0	0.2
제조업	1,889,020	737,948	1,151,072	285,953	865,119	28.3	19.0	41.1	41.9	40.8
전기가스수도	17,145	7,156	9,989	1,828	8,161	0.3	0.2	0.4	0.3	0.4
건설	497,380	386,597	110,783	29,865	80,918	7.5	10.0	4.0	4.4	3.8
도소매음식숙박	1,978,712	1,296,776	681,936	168,461	513,475	29.6	33.5	24.3	24.7	24.2
운수창고통신	384,617	255,802	128,815	35,887	92,928	5.8	6.6	4.6	5.3	4.4
생산자서비스	813,770	594,379	219,391	54,466	164,925	12.2	15.3	7.8	8.0	7.8
사회개인서비스	1,085,812	590,698	495,114	105,057	390,057	16.3	15.2	17.7	15.4	18.4

자료: 경제기획원,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1, 1986, 199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5.



&lt;표 7&gt; 수도권 산업의 종사자규모별 비중변화

구 분	수량					비중 (%)				
	수도권	서울시	비서울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서울	비서울	인천	경기
사업체수										
(1980) 계	13,760	7,666	6,094		6,094	100	100	100		100
5-19인	7,354	4,501	2,853		2,853	53.4	58.7	46.8		46.8
20-99인	4,632	2,363	2,269		2,269	33.7	30.8	37.2		37.2
100-499인	1,486	664	822		822	10.8	8.7	13.5		13.5
500인이상	288	138	150		150	2.1	1.8	2.5		2.5
(1985) 계	24,394	13,636	10,758	1,998	8,760	100	100	100	100	100
5-19인	14,186	9,073	5,113	831	4,282	58.2	66.5	47.5	41.6	48.9
20-99인	8,137	3,791	4,346	853	3,493	33.4	27.8	40.4	42.7	39.9
100-499인	1,822	678	1,144	260	884	7.5	5.0	10.6	13.0	10.1
500인이상	249	94	155	54	101	1.0	0.7	1.4	2.7	1.2
(1990) 계	40,262	17,523	22,739	4,424	18,315	100	100	100	100	100
5-19인	25,825	12,388	13,437	2,463	10,974	64.1	70.7	59.1	55.7	59.9
20-99인	12,369	4,592	7,777	1,628	6,149	30.7	26.2	34.2	36.8	33.6
100-499인	1,804	465	1,339	271	1,068	4.5	2.7	5.9	6.1	5.8
500인이상	264	78	186	62	124	0.7	0.4	0.8	1.4	0.7
(1995) 계	53,669	20,295	33,374	7,680	25,694	100	100	100	100	100
5-19인	40,449	16,678	23,771	5,315	18,456	75.4	82.2	71.2	69.2	71.8
20-99인	11,462	3,265	8,197	2,030	6,167	21.4	16.1	24.6	26.4	24.0
100-499인	1,565	304	1,261	291	970	2.9	1.5	3.8	3.8	3.8
500인이상	193	48	145	44	101	0.4	0.2	0.4	0.6	0.4
종사자수										
(1980) 계	930,528	445,964	484,564		484,564	100	100	100		100
5-19인	73,110	44,662	28,448		28,448	7.9	10.0	5.9		5.9
20-99인	206,082	103,304	102,778		102,778	22.1	23.2	21.2		21.2
100-499인	296,358	130,425	165,933		165,933	31.8	29.2	34.2		34.2
500인이상	354,978	167,573	187,405		187,405	38.1	37.6	38.7		38.7
(1985) 계	1,159,482	483,235	676,247	175,364	500,883	100	100	100	100	100
5-19인	141,331	87,560	53,771	9,420	44,351	12.2	18.1	8.0	5.4	8.9
20-99인	348,936	156,222	192,714	38,269	154,445	30.1	32.3	28.5	21.8	30.8
100-499인	350,784	127,550	223,234	53,615	169,619	30.3	26.4	33.0	30.6	33.9
500인이상	318,431	111,903	206,528	74,060	132,468	27.5	23.2	30.5	42.2	26.4
(1990) 계	1,447,881	470,617	977,264	237,165	740,099	100	100	100	100	100
5-19인	259,849	120,417	139,432	26,461	112,971	17.9	25.6	14.3	11.2	15.3
20-99인	483,721	169,905	313,816	65,912	247,904	33.4	36.1	32.1	27.8	33.5
100-499인	344,422	90,175	254,247	54,112	200,135	23.8	19.2	26.0	22.8	27.0
500인이상	359,889	90,120	269,769	90,680	179,089	24.9	19.1	27.6	38.2	24.2
(1995) 계	1,383,757	369,866	1,013,891	245,790	768,101	100	100	100	100	100
5-19인	366,341	144,953	221,388	50,609	170,779	26.5	39.2	21.8	20.6	22.2
20-99인	435,169	114,180	320,989	78,970	242,019	31.4	30.9	31.7	32.1	31.5
100-499인	291,370	57,872	233,498	56,624	176,874	21.1	15.6	23.0	23.0	23.0
500인이상	290,877	52,861	238,016	59,587	178,429	21.0	14.3	23.5	24.2	23.2

자료: 통계청,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